
	보 도 설 명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1.25(월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 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

제 목 :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.(한국경제 등 1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- ☐ 한국경제·서울경제·머니투데이 등은 1.25일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 기사 등에서,
 - 금융위원회가 연봉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안, 연장 등을 통해 만기가 길어진 장기 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지난 1.20일(수) 및 1.22일(금)에 배포자료*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현 시점에서 확정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.

* 업무계획 중 가계부채 관리 관련(1.20일),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관련(1.22일)

-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현재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를 진행 중이며, 1분기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정·발표될 예정입니다.

- 이에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‘연소득 이상 대출자에 적용 ‘가닥’, ‘연봉 초과분만 분할상환 추진’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,
-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